

요한복음 38번째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12-20

본문은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시작된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본문의 말씀은 참으로 이해 하기 어려운 말씀이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하여 많이 기도했고 성경을 수없이 반복해서 읽고 묵상 했다. 그리고 주석도 많이 읽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 이 설교를 귀를 기울여 듣고 성경 말씀을 자세히 살펴 보기를 바란다. 본문은 빛을 따르는 자와 어둠에 다닌 자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I. 빛을 따르는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했다.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위대한 진리이다. 빛을 따른다는 말은 맹목적으로 아이가 엄마를 따르듯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아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의 뜻을 알고 그의 생각대로 같이 생각하며 그와 항상 동행한다는 의미이다. 참 제자도를 의미한 것이다. 내가 신학교에 다닐 때 한 은사는 나를 따르라는 말로 책을 한권 썼다. 본혜퍼도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 값비싼 은혜의 진리를 강조했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는 말은 그분의 생명의 빛을 갖게 된다는 의미이다.

"나는 빛이다 . . . 나를 따르는 사람은 . . . 빛을 가질 것이다 . . . 너희는 나를 너희의 빛으로 가질 것이다"라고 우리주님은 말씀하신다.

우리가 갖게 될 생명의 빛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도 요한은 본장 13-29절에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님의 관계 때문이라는 사실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다. 이 구절들에서 적어도 일곱 번에 걸쳐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께로 부터 왔으며 아버지의 권위로 말씀하시고 아버지께로 가며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신다. 다시 말해, 그는 자신의 권위가 어떤 인간적 기원 때문이 아니라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하신다. 예수님이 주장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으로서 말한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 안에서 예수님이 주장하는 것은 "나는 이다(I am)"라는 것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자(I am that I am" 출애굽기 3:14)이신 하나님과 하나이다는 말이다. 특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강조한 내용이 많이 나온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한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가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다.

12절의 마지막 구절에 주목해보자. "네가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과 생명 사이의 연결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1:4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은 빛을 준다. 예수님이 소유하신 생명,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 안에 있는 생명은 그들에게 빛을 준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빛에 대해 죽어 있었고 소경이었다. 앞부분에 나온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빛에 대하여 죽어 있었고 소경이었다. 우리 마음의 눈이 열리고 신성한 빛이 우리의 살아있는 영으로 흘러 들어올 때 우리는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 빛은 새롭고 영적이고 눈을 뜨게 하는 생명, 즉 눈먼 영혼에게 시력을 주는 생명, 영원한 시력을 주는 영원한 생명에서 오는 빛이다. 이 영적인 빛을 가진 자만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무한한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다.

12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여기서 "세상의 빛"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 되셨다는 것은 세상에 그분 외에 다른 빛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상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어둠이 있을 뿐이다. 세상은 참 빛이 있거나 어둠이 있을 뿐이다. 제3의 대안은 없다.

또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뜻"은 세상은 이 빛을 위하여 만들어졌다는 뜻이다. 이것은 예수님은 이 세상의 손님이 아니고 주인이 되신 것이다. 예수님이 빛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 땅에 오신 것이다(요한복음 1:9-11). 이 빛이 오면 이 세상의 가짜 주인인 죄와 더러운 것들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그 총만하고 참된 아름다움으로 빛나게 한다. 마치 어둠방에 빛이 비추이면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고 아름답고 밝은 것들이 눈에 잘 보이는 것과 같다. 이 세상은 이 빛으로 밝혀지도록만 들어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은 언젠가 이 빛이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이 세상이 가득 찰 것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모든 어둠과 어두움의 일들과 모든 어둠의 자식들은 쫓겨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옥을 "바깥 어둠"이라고 부르셨다(마태복음 8:12:22:13: 25:30). 그 날에는 모든 것이 빛날 것이다. 아버지의 광채이신 예수께서 세상을 가득 채우실 것이며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아름다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복음 12:36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믿어야 할 것이다.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당신이 예수님을 당신이 소중한 빛으로 믿을 때, 당신이 진리와 지혜와 길이요 아름다움이신 그분을 따를 때, 당신은 그분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 당신은 "빛의 아들"이다. 당신은 빛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그리고 이 빛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다. 세상이 "모든 빛이 꺼진다"고 생각하는 죽음의 순간에도 그것은 당신에게 천국의 빛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II. 빛을 따르지 않는 자.

13절: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되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한 뜻은 요한복음 5장 31절의 말씀을 오해 한 것이다. 요한복음 5:31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네 스스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한 것은 네 스스로 말한 것이니까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 5:31절에서 말한 본래의 뜻은 “만약 내 증거가 나 자신에게서 온다면, 그것이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면, 내가 아버지와 단절된 나 자신에 대한 증인이라면, 나는 거짓된 것이다”라는 뜻이다. 그러나 그들은 15절에서 나온대로 육체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오해 한 것이다.

예수님은 그들의 육체적인 판단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분으로서 사실인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요, 그의 모든 판단은 혼자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신 판단이다. 14-18절을 읽을 때 자세히 들어 보기를 바란다.

1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15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16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17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18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들의 문제는 예수님이 어디서 오며 어디를 가는지 알지 못한 것이다. 또한 그들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자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언은 혼자 하는 증언이 아니고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증언하신다는 의미를 도저히 이해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 의미를 육적인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19절에서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고 묻는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답변 하셨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라는 것이다. 이 진리를 받아 드린다면 실로 놀라운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 그러나 아직 때가 안되어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수 없었다. 20절의 그들의 마음의 분노를 이렇게 말한다.

20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은 예수님을 잡고자 했지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 아무도 그를 채포 할 수 없었다는 의미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대로 빛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육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다. 육적인 생각에 사로 잡힌 자들은 보기는 보아도 보자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본장 30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매 많은 사람이 믿더라”고 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지만 육적인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믿지 못한다. 이것은 큰 비극이다. 당신은 어떠한가? 바리새인들처럼 항상 육적인 사고에만 사로 잡혀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힘써 말씀을 상고하며 참 빛되신 예수님을 따른 삶을 살고 있는가? 말씀을 힘써 읽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계속 말씀을 묵상하여 성령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삶은 살 때 말로 다할 수 없는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다. 그와 같은 삶은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